

◇허허당 향촌스님작 '화엄법계도-비전상'

“선화 통해 오시는 부처님”

‘선목달마전’ 등 봉축 전시회 다채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전시회는 선화 위주의 스님들 개인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달마를 즐겨 그려온 범주스님의 선목달마전이 18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소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범주스님이 5년여동안 숙려산 달마선원에서 집거하며 그린 달마도 1백여점이 전시된다. 전형적인 달마도와는 달리 ‘서있는 달마’ ‘행보하는 달

의 작가가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인사동 단성갤러리에서 ‘불교판화 3인전’을 갖는다. 한국불교문화원(원장 홍무흠)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에서 강행복씨는 ‘날마다 좋은 날’ ‘나무와 새’ 등을, 김영만씨는 ‘이웃과 민족을 위한 생명의 탑’ ‘목어송’ 등을, 정비파씨는 ‘남산불국토 점도’ ‘운주사 천불천탑’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02)739-8430

범주·통척스님등 개인전 눈길 강행복씨 등 3인 ‘불교판화전’



◇통척스님 목판화 '이릿고'

마 ‘흑(黑)달마’ 등 현대적인 이미지의 달마를 표현한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1월 발간한 화집 <선목달마> 출간기념회도 함께 열린다.

독특한 선판화의 세계를 개척해온 통척스님이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5일간 마포 서남미술관에서 ‘한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를 주제로 목판화전을 갖는다. 스님은 선사들의 공안을 상징화한 ‘이릿고’ 등 불교 판화 약 40여점을 선보인다. (02)715-9306

불교판화를 주로 제작해온 3명

이경숙 기자

“사바에 퍼지는 佛音”

초파일 앞두고 봉축음악회 잇달아

수국사합창단 21일 ‘부처님 오시는 소리’
불교성악회 29일 ‘음악공양의 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29일 음악회
대구봉축위 5월9일 가족찬불가 경연

가짜와 거짓말과 비리가 판을 치는 이 사회, 경기침체, 한보청문회로 인해 더욱 살맛이 안나는 요즘이지만 찬불가의 향기로운 선율이라면 사바세계의 각박한 심상에 촉촉한 단비가 되어주지 않을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음악회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어 불자들의 발길을 흥겹게 한다.

수국사(주지 자용)찬불합창단은 21일 저녁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부처님 오시는 소리’를 제목으로 연주회를 갖는다. 자문스님의 법고로 시작하는 연주회

는 ‘육신을 잡고 오체를 단져’ ‘부처님은 이르시네’ 등 찬불가와 가곡 민요 자장가 등이 미국민요 세레나데 가요 등 각 장르의 노래가 다양하게 연주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테너 조영수씨가 특별 출연해 ‘영주’ ‘청산에 살리라’를 부르고 소프라노 오승희씨와 이종창으로 오페라 찬양전중 ‘사랑가’도 공연한다. (02)359-6297

불교성악회(회장 김성국)는 29일 저녁 7시 서초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음악공양의 밤을 개최한다. 유동열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음

악회는 시명스님 김성국 전이순 씨등 성악가와 합창단이 나와 ‘반야심경’ ‘진리의 빛’ ‘새아재야 사랑새야’ ‘신아리랑’ ‘그리운 금강산’ 등 총 20곡을 선보인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홍운식)도 같은날인 29일 저녁 6시 엠버서더호텔에서 봉축음악회를 갖는다. 동국불교국악관현악단이 협연해 국악인 안숙선 김경임 김성녀, 사물놀이 김덕수 가수법사 김태곤·김홍국씨 등과 동국불교합창단이 무대에 서며 찬불가와 관소리 등이 공연될 예정이다. (02)269-3606

대구봉축위원회 주최로 제4회 가족찬불가경연대회가 5월 9일 오후 4시 대구 고려여식당에서 열린다. 가족·단체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찬불가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의 예선은 5월 3일 오후 4시 대구불교대학. (053)256-3725

이경숙 기자



보명사 봉축음악회

보명사(주지 상원)가 봉축음악회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4월7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내마음 하늘아래’ 제목의 봉축음악회에서 보명사 신도회 학생회 어린이합창단 등이 ‘이밤을 어디서 쉬나’ 등 찬불가를 발표, 사부대중 2천여명이 환희심을 가득 안았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주한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대사들과 대사관 직원들, 가족들이 특별 출연, 자국의 민요를 노래해 더욱 흥을 돋구었다.

불심시심 (84)

눈으로 보는 풍경

空階滴滴落鈴寒 (공계적적낙령한) 濕納掛枝雨不乾 (습납괘지우불건) 好積雲龍變化 (호적운룡변화) (호적운룡변화) 峯看深澗約成斑 (봉관심담약성반) 作巢燕子舍泥返 (작소연자함니반) 採藥仙童洗藥還 (채약선동세약환) 眼抬風光心不厭 (안승풍광심불염) 淸吟終日對青山 (청음종일대청산)	빈 들엔 주룩주룩 지는 방울 차갑고 줄에 걸린 젖은 장삼 비에 마르지 않네 풍계도, 쌓였던 구름 용의 변화를 얻어 반갑구나, 표범무늬 이룬 짙은 안개여 집을 짓는 제비는 진흙 물어 날아오고 약 캐는 아이는 산재를 씻어 들어오다 눈으로 경치 주위, 마음에 싫증 없으니 종일토록 읊으며 푸른 산 대하다
--	---

역시 송계대사의 시다. ‘큰 비가 넘쳐 사람도 오지않다(大雨漲溢人不通)’이라 한 시다.

오랜 장마 끝에 비가 멈춘 광경을 썼다. 처마에서 지는 물 소리를 방울 소리로 표현하였다. 청각에 호소해야 할 물 소리를 차다의 촉각으로 표현하였으니 일상성을 뛰어넘는 반상(反常)의 수법이다. 젖은 장삼을 가지에 걸었다(掛枝)함도 문학적 미화의 표현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장마철에 나뭇가지에 걸었을 리 없고, 빨랫줄에 걸었을 것이지만, 나뭇가지에 걸었다 해야 시적 감각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안개가 끼면 장마철에도 비가 개인다 한다. 그러기에 짙은 안개를 기쁨으로 보았다 하였다. 구름과 비를 용의 조화로 보는 것은 일반적 일기기는 하나, 여기서는 비 내림이 아닌 비의 개임을 용의 변화로 표현했으니 장마의 지루함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나를 간접적으로 이해시키고 있다. 거

기에도 안개를 표범의 얼룩 무늬로 표현하였음은 비교적 산뜻한 감각으로 와 닿는다. 제비 진흙 물어오고 선동이 채소 씻어온다 함도 장마 뒤 산촌의 일상적 풍경이기는 하지만, 서로 독립된 따로따로의 사실을 한 공간으로 모아 시적 구도로 압축하고 보니, 이 역시 새로운 운치를 맛보게 한다. 역시 고즈넉한 산촌의 멋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즐거움으로 맞이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아름다울 수 없다. 이 시는 그 점을 말하되, 먼저 눈으로 풍경을 살펴보고 그 살림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놓치지 않고 있다.

눈으로 보는 풍광이라는 표현도 재미있는 수사다. 이런 수사를 구성할 수 있는 작자이기에, 종일 읊으며 청산을 대한다는 결론으로 맺었다. 역시 대사로서의 시인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인간문화재들의 춤사위

한국명인인문 22-27일 연강홀 가야금산조 등 전통음악 발표

인간문화재들이 총 출연하는 ‘제15회 한국의 명인명인전(名人名人展)’이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주최로 22일부터 27일까지 연강홀(종로5가)에서 열린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지는 이 공연에는 승무출연무 바라춤 살풀이춤 태평무 등 한국의 대표적 춤을 강선영 이애주 김현홍 이현자 임이조 정재만 엄옥자씨 등 인간문화재를 비롯한 명인들이 대거 출연해 우리 전통춤의 진수를 선보인다. 또한 가야금산조(이영희) 거문고산조(원광호) 관소리 춘향가(오정숙) 대금산조(이성강) 등 전통음악 발표회도 함께 갖는다.

기라성같은 인간문화재들과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인들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이번 공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22일=춘앵무(김천홍) 가야금산조(이영희) 태평무(강선영) 거문고산조(원광호) 진도걸북춤(양태욱) 춘향가(오정숙) 승무(이애주) △23일=피리장악평조희상(정재국) 살풀이춤(김정녀) 가야금산조(양승희) 도



◇‘승무’를 추는 인간문화재 이애주씨.

살풀이춤(양길순) 대금산조(이성강) 태평무(이현자) △24일=처용무(김종삼) 정선아리랑, 이별가(이춘희) 태평무(이명자) 바라춤(자은스님) 춘향가(신영희) 승무(채향숙) △25일=태평무(조홍동) 살풀이춤(정재만) 승무(임이조) 한량무(이척) 춘앵무(송준영) 승무(김진홍) △26일=춘앵무(김희숙) 살풀이춤(서영일) 신라대신무(김영희) 태평무(고선아) 승전무(김무) 승무(채향숙) △27일=춘앵무(허순선) 살풀이춤(정명자) 일무(김영숙) 진서무(윤미라) 태평무(임현선) 승무(오은희) 문의 (02)585-7318.

사경솜씨 겨울 기회

조계종-동방연서회 주최 5월 20~25일 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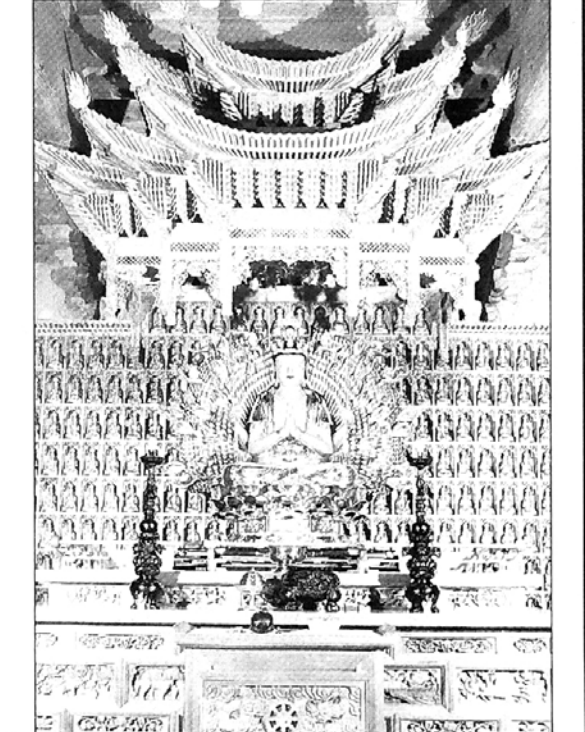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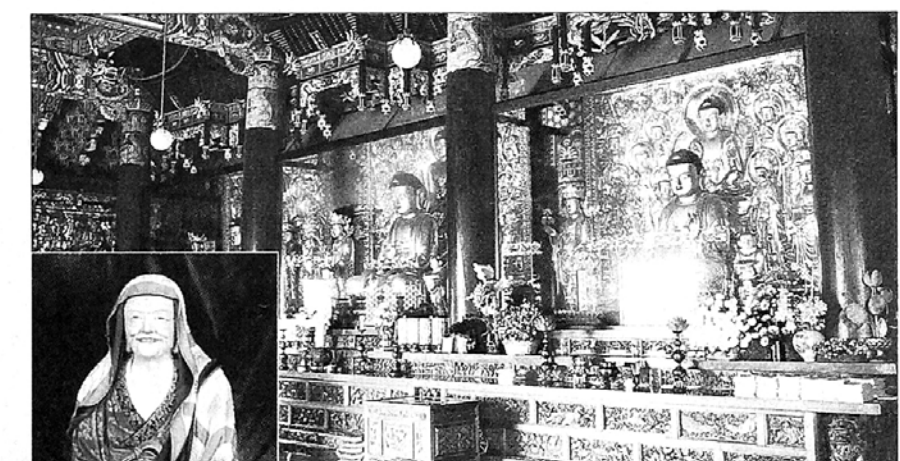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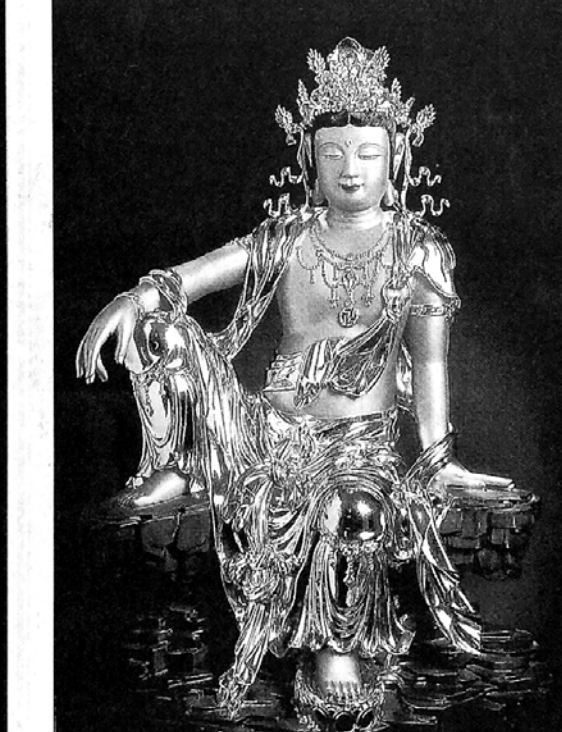
한자한자 불심을 넣어 쓰는 사경이 불자들의 중요한 수행방편이 되어 사경을 가르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매일 정성껏 사경을 하는 불자들도 급증하는 가운데 대규모 사경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갈고 닦은 사경솜씨를 겨루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방연서회(이사장 김용현)가 조계종 총무원과 함께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불교사경대회는 5월 20일~25일 예선을 거쳐 6월 20·21일 양일간 강원도 인제 영시암에서 본선을 갖는다. 승려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실시되며 본선은 현장에서 직접 쓰는 회화로 해서체가 대상이다. 참가비 3만원. 예선접수 5월 25일까지. (02)733-0131

대구에 불교인문전시관 탄생

대구에 불교전문 음악반회사 ‘삼영불교음악반(대표 이재근·대구시 중구 봉산동)’이 탄생했다. 지난달 문체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삼영빌딩 지하에 사무실을 개설, 본격 활동에 들어간 삼영불교음악반은 경전, 큰스님 법문 테이프 등 불교관련 오디오북 상품을 개발, 시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053)421-3980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련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 「본 조각원의 소물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교 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